



망하는 복지정책

퍼주기식 복지정책 망하는 지름길

미국의 어느 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오바마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경제학을 가르쳐 오면서 단 한명에게도 F학점을 줘 본 일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수강생 전원이 F학점을 받았다고 한다. 학기 초에 학생들은 오바마의 복지정책이 올바른 선택이고 국민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비난하거나 지니친 부자로 살아가는 안 된다고 하였다. 평등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교수가 "그렇다면 이번 학기에 한 가지 실험을 해 보자."고 제안을 했다. "이번 학기에는 매일 시험을 보는 것으로 하고 수강생 전원이 학급 평균 점수로 똑같은 학점을 받는 것이 어떨까?"고 실험과제를 제시하였고 학생들은 이 실험에 모두 동의하였다. 그리고 그 학기 수업이 진행되었다.

얼마 후 첫 번째 시험을 보았는데, 전체 학급 평균점이 B학점이 나온 관계로 약속대로 학생들은 모두 첫 시험 점수로 B학점을 받았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불평했고 놀기만 했던 애들은 좋아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두 번째 시험을 쳤다. 공부를 안 하던 학생들은 계속 공부를 하지 않았고 이전에 열심히 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자기들도 공부를 타고 싶어 시험공부를 적당히 했다. 그러자 전체

학급 평균이 D학점이 나왔고 학생들은 모두 D학점을 받게 되었다. 이번에는 모든 학생들이 학점에 대해 불평했지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는 학생은 없었다.

그 결과 세 번째 시험에서는 모두가 F학점을 받았으며 그 후 학기말 시험에서도 모두 F학점을 받았다. 학생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했지만, 아무도 다른 학생들을 위해 더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모든 학생들은 학기말 성적표에 F학점을 받았다.

그제야 교수가 말했다. "이런 종류의 무상복지정책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 사람들은 보상이 크면 노력도 많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의 결실을 정부가 빼앗아서 놓고먹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다."

위의 실험처럼 모두가 똑같은 점수를 받았듯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 먹는다라는 정책은 결보기에는 정말 평등하고 바람직한 정책인 것 같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 "나만 열심히 해야 무슨 소용이 있나? 결국 똑같이 받게 될 텐데..." 하며 적당히 눈치만 보며 요령을 피우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공멸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공산주

의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망할 수밖에 없는 무상복지정책의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부자들의 부를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가 되게 할 수는 없다.
- ② 한 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면, 다른 한 명은 반드시 보상 없이 일해야 한다.
- ③ 정부는 누군가에게서 빼앗아온 가난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 ④ 부를 분배함으로써 부를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⑤ 국민의 절반이 일하지 않아도 나머지 절반이 먹고 살려 줄 거라는 생각은 국가 쇠퇴의 지름길이다 (WayneDupree.com).

상어가 강한 이유가 바로 부레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물위로 떠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상어는 어떻게든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여야만 살아갈 수 있다. 그 결과 상어는 강해졌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바다의 포식자가 된 것이다. 스스로 노력하여 팍 흘러 일해야 돈도 벌고 건강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야 나라도 부강해지는 것이다. 어느 경제학자의 망할 수밖에 없는 복지정책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는 것은 비단 필자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수타의 요가 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마음속에 잡념을 내려놓고, 마음속에 미음을 내려놓고, 복잡한 마음을 한 단계 내리고 감정을 가라앉히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넓어지고 편안해진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편안하게 먹고, 찬 음식을 피하고, 요가를 천천히 꾸준히 해보자. 소유하려는 마음이 적어질수록 마음이 편안해진다.

마음은 몸과 별개가 아니라 상호 교류하며 소통한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지고,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지는 법. 그렇다고 너무 릴렉스되어선 안된다. 마음도 늘어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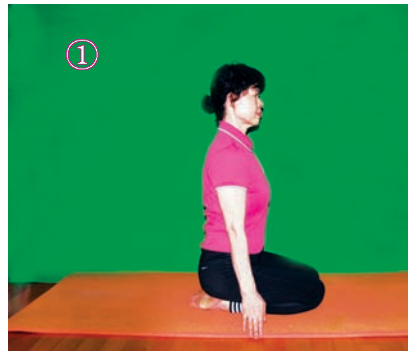
요즘같이 열대야가 계속되는 한 여름철에는 잠을 못 자게 되어 피로가 쌓이기 쉽다.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삼계탕과 같은 보양식으로 에너지를 보충해

주고, 늘어난 몸을 조금 긴장시키는 요가를 해보자. 간단한 요가 동작으로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를 말끔히 씻어보자. 화이팅!

척추·등·목 피로풀기

효능 : 상체를 앞으로 숙여 몸을 둥그렇게 만드는 동작이다. 서서 일하는 직장인의 허리의 피로를 풀어주고 허리디스크를 예방한다.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도와주며, 머리가 아플 때도 효과적이다.

동작① : 무릎을 꿇고 금강좌로 앉는다. 숨을 들이마시며 상체를 바로 세운다.



동작② : 숨을 내쉬며 상체를 숙이고 손등은 바닥에 대고 머리를 앞으로 숙여 바닥에 붙인 상태로 10초 동안 유지한다.

동작③ : 머리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10초 동안 유지한다.

동작④ : 엉덩이를 높이 들어 올리고 백화혈이 바닥에 닿도록 유지하며 복식호흡을 한다. 10초 유지. 동작 ①~④ 번까지 이어서 3회 정도 반복한다.*



善用人者 爲之下

선용인자 위치하

사람을 잘 쓰는 것이란 낮아지는 행을 하는 것이다

도덕경 68장 해설

왜 우리가 도를 닦고, 도의 길을 가야 하며, 또 도는 우리 인생들에게 왜 필요한가?

이에 대한 정답은 바로 도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기 때문이다. 여차 피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 가려면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바른 답안이 바로 도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사람이면 누구든지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러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픈 소망이 있다. 이러한 인간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도를 바로 노자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성품을 결부시켜 잘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본성은 본래 자연과도 같다는 것이 노자의 무위자연과 얽달하루의 도이며, 불로장생의 도인 것이다. 우리 인생 본연의 성품으로 되돌아가는 길은 마치 자연의 이치와 흡사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렇다고 생로병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의 역사는 얼마나 위대하며 유구한가! 이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도덕경을 심독(心讀)하고 있는 독자라면 노자의 도맥(道脈)을 잘 잡고 따라가고 있을 것이다. 자연의 섭리는 인간처럼 육식 감정 이기심 파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대하여 무한히 주고자 하는 큰 사랑을 펼쳐 보이고 있다. 인간은 자연에서 나는 것을 통하여 먹고 호흡하며 생존해 나가고 있다는 것쯤은 잘 알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은 얼마나 생명적이고, 우리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어머니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이 자연과도 우주의와 같은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즉각 알아채게 될 것이다. 도를 잘 닦는다는 것은 바로 얼마나 자



연의 섭리, 생명의 섭리, 존재의 섭리를 따라 잘 사느냐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 노자의 도를 통하여 머리로 아는 것으로 되는 줄로 안다면 큰 착각이다. 오직 몸과 마음으로 즉각적인 실천이 문제인 것이다. 실천하지 않으면 그 생명적이고 절대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한참 흰 종이 위에 쓰여진 낱말 따위에 불과하다. 고로 첫째도 실천, 둘째도 실천, 셋째도 실천이다.

善爲士者 不武(선위사자 불무): 도를 잘 닦는 사람은 무력을 쓰지 않는다

도를 잘 닦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선으로 상대를 굴복시킨다. 선만이 진정 상대를 따르도록 하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숙된 말로 감정의 동물이다. 감정은 자신에게 불이익이나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 반감을 갖고 거침없이 욕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악한 성질의 것이다. 도를 잘 닦는 사람은 바로 인간의 이러한 감정을 잘 아는 사람이다. 때문에 결코 상대로부터 이러한 감정유발의 원인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여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한다.

善戰者 不怒(선전자 불노): 잘 싸

우는 것이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잘 싸우는 것이 상대와 대립 충돌을 하는 가운데 이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수도인에게 있어서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란 자신의 악한 감정의 마성(魔性)을 능수능란하게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 하여 항상 온화하고 편안하게 상대를 대하도록 마음다스리기를 하여 애당초 싸움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

善勝敵者 不與(선승적자 불여): 잘 싸워 적을 이기는 것이란 맞부딪치지 않는 것이다

참 도인에게는 남이란 의식의 구별이 없는 사람이다. 곧 타인을 제 자신의 일부처럼 여긴다. 몸은 비록 따로지만 본래가 한 조상의 형제자매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이라고 해서 나라가 다르다고 해서 적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와 한나라는 인식 속에서는 그 누구와도 부딪칠 일도 싸움 일도 만들지 않는 것이다.

善用人者 爲之下(선용인자 위치하): 사람을 잘 쓰는 것이란 낮아지는 행을 하는 것이다

시키는 사람이 고자세로 남을 부리는 것은 그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 차별하는 마음이 있어서다. 이런 마음은 나

와 남을 다르게 보고 높고 낮음의 의식의 구분을 짓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차별의식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상대를 진심으로 잘 따르게 할 수 없다. 차별의식의 마음은 이미 악한 감정을 바닥에 끼는 인간의 비본래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상대가 벌써 알아차리고 가식적인 순응으로 대한다.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거스를 수 있다. 사람이 먼저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순수의식(양심)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것을 느끼고 화답하는 마음이 순종인 것이다. 진실로 낮아지는 자세로 상대의 마음과 행동을 이르면 어떠한 사람도 순종하는 참된 인간이 되게 한다.

是謂不爭之德(시위부쟁지덕): 이것이 이르러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한다

이것이 인간의 참된 성품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무아 무감정 무폭력적인 덕의 모습인 것이다.

是謂用人之力(시위용인지력): 이것을 일컬어 사람을 쓰는 힘이라고 한다

민사의 성태가 사람과의 관계이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어떠한 일에 매달리도록 사람을 쓸 수 있다면 세상에서 못 이룰 것이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도와 덕을 근본으로 사람을 대할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是謂配天古之極(시위천고지극): 이것이야말로 도의 궁극적 비탕에 이르는 것이요다

인간에게는 궁극의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와 덕을 통하지 않고서는 과히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다. 동서고금의 성인과 도인의 한결같은 교훈적 가르침, 이것이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주호 기자

허만욱 승사 칼럼

마음먹은 대로 피가 변하고 몸이 변한다

마음먹기에 따라 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병을 쉽게 고칠 수도 있다. 즉 "마음에서 병이 생기는 것이니,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으로 병을 낫게 하라"고 하였다. 성경에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잠 4:23)"고 하였으며, 누구에게 물어도 그 대답은 "마음이 달려 있다"로 귀결될 것 같다. 만병의 원인은 피가 썩는 데 있으며, 평소애 썩은 피가 몸속에 축적되어, 그

피가 썩기 시작하면서 병균이 발생하여 발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주체영이 마귀요 자존심인 고로 아무리 조심하여도 피는 썩게 마련이다. 썩은 피는 모세혈관에 축적되어 특히 피순환이 잘 안 되는 부위에 쌓이게 된다. 오래된 썩은 피는 체력이 약화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서서히 부패하고 마치 썩은 물에 장구벌레가 생기듯 병균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발병의 근본 원인이고 특히 노인병의 주요 원인인 것이다. 결국 병원을 찾게 되는 데, 병원에 가면 우선 피검사를 받게 된다. 병균이 발견되면, 으레 주사약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주일 이내에 병세가 꺾이고, 환자는 기쁨으로 퇴원을 서두르게 된다. 이 상태는 병을 일으킨 주범을 죽였으니, 병은 사라졌고, 결국 퇴원하게 되는데, 이 순간이야말로 의사를 비롯한 환자 가족

생하게 되는 것이다. 재차 환자가 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피검사를 받게 되고, 병명은 같으나 준비된 주사약으로 다스리게 된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되어도, 약효는 없고 오히려 병세가 강해지는데 이에 상응하는 조치는 효과가 없게 된다. 결국 사망하여 가면 우선 피검사를 받게 된다. 병균이 발견되면, 으레 주사약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주일 이내에 병세가 꺾이고, 환자는 기쁨으로 퇴원을 서두르게 된다. 이 상태는 병을 일으킨 주범을 죽였으니, 병은 사라졌고, 결국 퇴원하게 되는데, 이 순간이야말로 의사를 비롯한 환자 가족

모두가 필히 알고 있어야 할 '중대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환자 몸속에 발생하였던 병균은 전멸했으나, 그 병균을 발생시킨 썩은 피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병원에서 한 일은 주사약으로 병균만 죽였지, 병균의 온상인 '썩은 피'는 제거할 생각도 못할 뿐 아니라 능력도 없고, 의무사항도 아니니, 이대로 퇴원해서 간다면, 몇 개월 안에 재입원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퇴원하고 금치되었던 식품 등을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생활이 계속되자 2-3개월 만에 몸은 쇠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 몸속의 썩은 피가 다시 썩기 시작하여 병균이 발

만병의 원인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재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 | | | | | |
|------------------------|-----------------------|----------------------|----------------------|----------------------|------------------------------|
| 역곡제단 : (032)343-9981-2 | 영도제단 : (010)6692-7582 | 진해제단 : (055)544-7464 | 정읍제단 : (063)533-7125 | 橫濱祭壇 : (045)261-6338 | 大阪祭壇 : (06)6451-3914 |
| 수원제단 : (031)236-8465 | 김해제단 : (055)327-2072 | 영천제단 : (054)333-7121 | 군산제단 : (063)461-3491 | 神戸祭壇 : (078)862-9522 | 神奈川祭壇 : (045)451-3150 |
| 안성제단 : (031) 673-4635 | 대구제단 : (053)474-7900 | 사천제단 : (055)855-4270 | 대전제단 : (042)522-1560 | 下関祭壇 : (0832)32-1988 | Philadelphia : (215)722-2902 |
| 평택제단 : 010-9261-9974 | 마산제단 : (055)241-1161 | 포항제단 : (054)291-6867 | 청주제단 : (043)233-6146 | 久米祭壇 : (0942)21-4669 | London : (0208)894-1075 |
| 부산제단 : (051)863-6307 | 진주제단 : (055)745-9228 | 순천제단 : (061)744-8007 | 충주제단 : 010-9980-5805 | 岐阜祭壇 : (0584)32-1350 | |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